

# 한국도로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 1. 우리 공사 체험형 인턴에 지원한 동기 및 근무기간 동안 달성하고 싶은 목표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홍보인] 한국도로공사 홍보실에서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한국도로공사의 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랫폼 기업'이라는 가치에 기반해서 국민들의 안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희망드림이라는 사업을 통해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건설, 유지관리 업무 등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가치와 유관된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사회를 더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관의 성장을 넘어 사회의 한 일원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제가 지향하는 곳입니다. 상생의 가치를 아는 한국도로공사의 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 정보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의 안전 의식 홍보 콘텐츠를 기획하고 싶습니다. 6개월간 홍보대행사 인턴으로 근무하며 정보수집 능력을 기르고자 노력했습니다. 자동차, 주류, 패션제품, 화학회사 등 다양한 업종의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홍보 트렌드를 조사하고 유전자 및 건강식품 회사의 블로그 및 페이스북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기업에 대해 관련 기사, 홈페이지 등을 조사했고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점검 후 수집했습니다. 이후 타 기업들의 콘텐츠를 수집해 최근 SNS 트렌드를 조사했습니다. 당장 기획에 필요한 자료가 아니더라도 정리해 다른 콘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특성과 트렌드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콘텐츠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기른 정보수집 능력으로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콘텐츠를 제작해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에게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 한국도로공사의 여러 업무영역 중 지원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한 가지 선택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해 주십시오.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력]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홍보'입니다. 홍보란 트렌드를 읽고 그에 맞는 홍보 전략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에 맞는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력'을 지니고 인턴사원입니다. 네팔의 의류 폐기물을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업사이클 기업 REVIVE를 위한 크라우드펀딩을 기획한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프로모션이 어렵다는 점에서 저는 전략적으로 SNS 참여를 홍보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첫째, 크라우드 펀딩 후 네팔 환경 히어로 인증서를 발급해 SNS에 게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둘째, 허그하는 포드로 사진을 찍어 3명 태그 후 SNS에 올리면 포스트 하나당 100원이 기부되는 에코 엔젤 허그 챌린지를 기획했습니다. 당시 SNS에 해시태그를 이용한 영상/사진 챌린지가 유행하는 것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SNS 담당으로서 REVIVE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카드 뉴스를 기획해 만들고 조원들이 만든 카드 뉴스를 게재하면서 REVIVE를 본격적으로 알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캠페인(제목: 의류 폐기물에 새 생명을, REVIVE!)의 목표 모금액 101%를 달성하게 되었고 '2020 CSR Youth Consultant Program'의 아이디어 기획 부문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업사이클링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REVIVE를 홍보해 성과를 낸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편리함을 책임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트렌드를 읽고 반영하는 캠페인 기획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편리성을 높이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의 인턴 경험을 통해 국민을 위한 홍보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 조직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타인과 협력하여 성과를 창출한 경험에 대해 서술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 및 노력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기업탐방] 저는 타인과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것을 CSR 기업탐방 준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업탐방에서 현직자와의 인터뷰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사전 조사, 질문 선정 및 정리 등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한 회의 날짜나 업무 분담 등을 해야 했지만 아무도 선뜻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기업탐방 사전자료를 제출해야 할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회의 일정에 대한 투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작성해놓은 리스트를 토대로 업무 분담을 주도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업무 분담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얻은 후 조원들이 원하는 업무에 배정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각자 가지고 온 자료를 토대로 조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목차를 구성했고 조원들의 질문을 토대로 기업탐방 필수 질문을 조원들과 함께 선별해 최적의 질문지를 뽑았습니다. 이 외에도, 조별 발표 때는 인턴 활동으로 바쁜 조원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PPT 자료를 작성해 올렸습니다. 이후 기업탐방 당일 참여하지 못하는 조원들을 위해 작성된 파일과 음성녹음 파일을 전달해 기업탐방 결과물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조원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 열심히 수행해 일정에 맞춰 사전자료를 현직자에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탐방 인터뷰 당일에도 어려움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활한 소통이 없이는 예정된 일정에 맞춰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할 때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나보다는 국민을 생각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인턴사원이 되겠습니다.

## 타인을 위해 배려, 봉사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하고, 그러한 경험이 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작성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을 통해 배운 공동체 의식]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체험 활동을 돕는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힘들어지면서 우울증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아짐에 따라 진행된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체험 활동은 아로마 방향제를 만드는 활동이었습니다. 강사의 설명에 따라 진행하는 데 중간에 어려움이 있으신 어르신들을 찾아가 도와 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색한 때문인지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어보면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도와드릴까요?'라는 말보다 '오늘은 날이 꽤 덥죠?', '코로나 때문에 나가시기 어려우셨죠?' 등에 인사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들이 점차 마음을 여셨습니다. 어느 정도 친밀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찾아갔습니다. 비커의 눈금 표시가 보이지 않아 어려운 어르신께 다가가 액체를 따라드리고 순서가 늦춰지신 어르신들께 곧바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향제 겔로 인해 액체가 부풀어 오르면서 용기를 쏟으신 어르신께 곧바로 괜찮냐고 여쭙본 후 휴지를 갖다 드렸습니다. 곧바로 새로운 키트를 돌려 다시 방향제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활동이 마무리될 때 어르신들은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손녀 같다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대 갈등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한 경험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고객들의 어려움을 최우선을 생각하고 고객의 성장과 행복이 자신에게 더 큰 성장을 가져다준다는 생각으로 근무하겠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체험형 청년인턴